대한수의사회지 제28권 제7호
J. Kor. Vet. Med. Assoc.
Vol. 28, No. 7, July, 1992

개의 骨盤脹骨의 縱骨折의 一例

岸上義弘** 等
趙 俊 行* 譯

개의 骨盤의 脹骨에 斜骨折이 일어난 것으로 알았으나 막상 手術을 하여보니 脹骨이 縱骨折이었다. 이미 준비하여둔 長骨用 plate으로는 處置할 수가 없어서 우선 手術을 中斷하고 이 骨折에 적합한 새로운 plate을 만들어 사용하였다.

서 론

골반골절의 수술에는 일반적으로 plate법이 적용되어왔다. 흔히 발생되는 脹骨의 橫骨折이나 斜骨折에서 長骨用의 plate를 사용하였으나 이번 증례에서는 長骨 plate로는 부족한 脹骨縱骨折의 증례로 봐서 수술도중 새로운 plate를 만들어 사용하게 되어 이를 보고한다.

증 례

患畜은 紫犬 雄 6m 體重 5.8kg
數時間前 交痛事故당함.

초진시 일반소견

CRT과 舌色正常, 後肢步行不能으로 통감이 심하고 마비증세는 없었다.

X-ray 검사소견

左脹骨骨體斜骨折로 판독하고 恥骨·兩坐骨骨折이 있었다. 그리고 腹腔內 臟器나 排尿器管에는 이상을 볼 수 없었다.

手術所見

骨盤骨手術方法에 의해서 脹骨을 노출시킨 결과 脹骨은 斜骨折이 아니고 縱骨折되었음을 알아냈다.

이미 준비한 長骨用 plate로선 斜骨折에 적응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이 長骨用 plate는 어느방향으로 부착시켜도 骨折을 固定시키는데 부당하다는 것을 알았다. 그럼으로 骨折手術을 일단 중지하고 수술실에서는 마취만을 유지하면서 病院內에 있는 工作室에서 本骨折에 적합한 plate를 만들었다(그림 1).

全方向開創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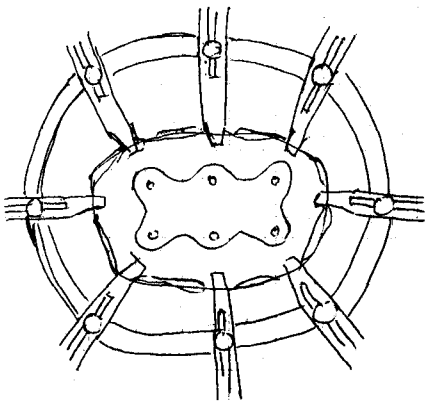

그림 1.

Plate의 두께1.2㎜, 길이 1.4㎝, 폭 2.7㎝인 것에 나사구멍을 그림과 같은 위치에 6개 뚫고 필요없는 부분은 가려냈다.

다음에 만든 plate를 자불살균하고 수술을 시작하였다. 그러나 6개의 나사 구멍중 4개만을

* 청운동물병원
** 岸上獸醫科

그림 2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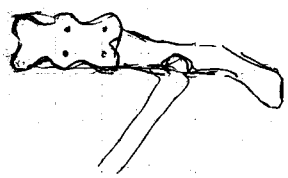

그림 3.

사용하여 수술을 마쳤다(그림 2~3).

그후 4일후 기립할 수 있었고, 일주일 후에는 거름을 걸을수가 있었다.

고 찰

이번 골절에 대한 처치는 수술도중 새로운 plate을 만들기 위해서 수술을 중단하여 많은 시간을 허비하였는데 이 원인은 X-ray 사진을 정확하게 평가 못했으며 骨盤의 구조상 X-ray L像에서 左右의 骨이 겹쳐서 촬영되기 때문에 다른 長骨 등 보다도 판독이 어려웠다.

그럼으로 부득이 수술을 중단할 수 밖에 없었다.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앞으로도 아니 일어날 수가 없으며 이를 대비하여 골절을 전문으로 하는 동물병원에서 급할때 變型 plate를 만들 수 있는 기구와 공간의 준비도 필요하다.

몇해전 1987年의 本年次大會에서 骨盤骨折時 필자가 이야기 한 것과 같이 脹骨에 骨折이 생기면 骨折端끼리 겹쳐져서 長軸方向으로 단축되어가며, 이에 대해서 脹骨外角部와 寬骨部를 떨어지도록 잡아당기면 骨折端은 용이하게 교정되고 자연스럽게 骨折되기전의 모양으로 돌아온다. 이런 기전을 이용하여 이번에 사용한 기구는 그 이름이 全方向開創器로써 저자가 고안한 발명품이다.

이 기구로서 수술을 하니 여러가지 잇점이 있는데 특히 골절단을 자연상태로 되돌려 수술을 할 수 있는 잇점은 골반골절을 보다 하기 쉽게 하였다.

參 考 文 獻

1) Bojrab M. Joseph : 小動物外科臨床と 實際, 酒井保監譯, 第2版, 興仁舍, 東京 (1985) 653~658.